2026
04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국외 유아교육·보육 체제 분석: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최은영, 차기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외 유아교육·보육 체제 분석: 프랑스, 잉글랜드, 스웨덴을 중심으로[1)]

1 배경

- 2000년을 전후로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개편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주요한 흐름에 기초하여 유보통합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내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개편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사례로 프랑스, 영국(잉글랜드), 스웨덴 3개국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
  -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유아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의무교육의 확대, 유-초 연계,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개정, 인생 초기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양질의 디지털 경험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국내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2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가. 유아교육·보육 제도 및 현황

- 프랑스는 유아기부터 중등교육까지 연속적인 4개의 교육 주기(Cycle 1-4)로 구성되어 있는데, Cycle 1은 유아학교 3년에 해당하며, Cycle 2는 초등 1-3학년, Cycle 3은 초등 4-5학년과 중학교 1학년(초등-중학교 간 연계), Cycle 4는 중학교 2-4학년에 해당함(프랑스 한국교육원, 2022).
  - 이러한 '교육 주기' 체계는 학교급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구조로, 특히 유아기에서 초등 전환(Cycle 1-2)과 초등-중학교 연계(Cycle 3)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특징이 있음.
- 프랑스는 0-2세 영아 대상 보육과 3-5세 유아 대상 교육이 연령에 따라 이원화(유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영아 대상 어린이집(Crèche)은 복지부 관할이며, 2019년 의무교육이 시작된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는 교육부가 관할함에 따라 교육·보육과정 및 재정, 교사 학력과 자격 역시 이원화되어 있음(OECD, 2020b; Rayna, 2024).
  - 3세 이상 어린이 대상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는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으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함(OECD, 2023a). 이에 따라 프랑스의 3-5세 유아교육 취원율은 99% 이상으로 거의 100%에 달하고, 사립기관 재원 유아의 비중도 약 14%로 OECD 평균인 33%보다 낮은 수준임(OECD, 2023a). 이러한 보편적 무상교육 체제는 초기교육의 형평성과 질을 담보하는 장점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0-2세 보육은 이와 대조적으로 공립의 비중이 낮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가정은 등록 대기나 높은

1) 본 글의 내용은 2024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수행된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어젠다 분석 및 체제 개편 방안(최은영 외, 2025)' 연구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임.

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영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보육 수요 대비 공급 부족과 가정의 부담은 이원화 체제의 과제로 꼽힘(OECD, 2023c).

- 프랑스의 유아교육에 대한 총교육지출은 GDP 대비 0.7%로, OECD 평균 0.6%를 상회하며, 유아 1인당 연간 지출액은 9,985 USD로 OECD 평균(10,025 USD)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OECD, 2023a).

표 1 프랑스 교육체계

주기	학년	학제
Cycle Ⅰ 초기학습주기 (apprentissages premiers)	Petite Section (작은 반) (3세)	유아학교 (École maternelle)
	Moyenne Section (중간 반)	
	Grande Section (큰 반)	
Cycle Ⅱ 기본학습주기 (apprentissages fondamentaux)	Cours Préparatoire (준비과정)	초등학교
	Cours Elémentaire1 (초등과정1)	
	Cours Elémentaire2 (초등과정2)	
Cycle Ⅲ 강화주기 (consolidation)	Cours Moyen1	
	Cours Moyen2	
	Sixième	중학교
Cycle Ⅳ 심화주기 (approfondissements)	Cinquième	
	Quatrième	
	Troisième	
Cycle de détermination 결정주기	Seconde	고등학교
Cycle terminal 최종주기	Première	
	Terminale	

자료: 프랑스 한국교육원(2022). 교육과정: 프랑스교육정보. https://educoree.fr/france-edu/cursus/ (2026. 8. 20. 인출)

나. 교사[2) 3)]

1) 보육: 영아교사

- 영아 담당 보육인력의 자격과 학력에 대한 기준은 담임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담임교사의 경우는 학사 이상의 학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보조인력은 중등 교육 이상의 학력과 자격을 갖추도록 조건화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담임교사는 éducateur de jeunes enfants (EJE) (유아교육 전문가)로 칭해지는데, 대학교 학부 수준의 3년제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무시험검정으로 유아교육 전문 국가공인자격(Diplôme d'Etat d'éducateur de jeunes enfants, DEEJE)을 취득하게 됨(ISCED 6 해당). 자격 대상의 연령이 0-6세이지만, 3세부터는 의무교육인 유아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EJE는 보육시설에서 0-3세를 담당함.
  - 양성과정 중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총 60주 안팎의 현장 실습을 수행하는 등 현장 실습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졸업 후 DEEJE 자격이 수여됨.

2) 프랑스는 영아기와 유아기의 유보 이원화에 따라 교사 자격 체계도 구분되어 있음.

3) 해당 내용은 Rayna, S. (2024). France – ECEC workforce profile. In P. Oberhuemer and I. Schreyer (Eds), Early childhood workforce profiles across Europe. 33 country reports with key contextual data. https://www.seepro.eu/Seiten_Englisch/Texte_Englisch/France_Workforce.pdf (2026. 8. 25. 인출)을 바탕으로 작성됨.

-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와 달리 ISCED 3 (고등학교 졸업 수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업교육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며,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인 보육 자격을 갖추도록 함.
  - 보육 자격증에는 대표적으로 보육 보조교사(CAP Accompagnant éducatif petite enfance, CAP AEPE), 보육조무사(Diplôme d'Etat d'auxiliaire de puériculture, DEAP), 가정 보육교사(assistante maternelle)의 3가지가 존재함.
  - 보육자격증 중 하나인 보육 보조교사(CAP AEPE)는 직업 자격증으로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2년 과정임. 이 자격은 프랑스 직업자격인증체계(Répertoire National des Certifications Professionnelles, RNCP) 기준 레벨 3(기술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에 해당되며, 보육시설의 보조교사나 유아학교의 교실보조(agent territorial spécialisé des écoles maternelles, ATSEM)로 일할 수 있음.
  - 보육조무사 자격(DEAP)은 국가공인 자격으로, 복지부 산하 인증 기관인 영유아 보육 보조사 과정(Diplôme d'Etat d'auxiliaire de puériculture)에 입학해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만 17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수는 아님.
  -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가정 보육교사(assistante maternelle)의 경우에는 엄격한 학력 요건이 없으나, 지방정부로부터 보육 인가를 받은 후 120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120시간 교육 중 80시간은 인가 전, 나머지 40시간은 첫 영아를 맡은 뒤 3년 이내에 진행하면 됨.
  - 대체적으로 현장 실습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육보조교사(CAP AEPE)의 경우 총 2년의 수학 기간 중 총 14주 정도의 현장 실습을 수행하고, 보육조무사(DEAP)의 경우도 약 11개월(770시간)의 실습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음.

2) 유아교육: 유아학교 교사

-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유아학교 교사 자격은 초등교사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단일 교원 자격(Professeur des écoles)에 기반하여 초등학교 교원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즉, 초등교사 자격이 유아학교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동일 양성과정을 거침.
  -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 교사 단계에서 유아 발달 및 교수법에 대한 특화된 연수를 포함하고, 임용 후에도 유아학교 근무 교사를 위한 별도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유아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교사와 동일한 석사 학위 수준(ISCED 7)의 학력이 요구되며, 프랑스는 교사 양성 체제를 개편하여, 학사(3년 과정) 취득 후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쳐야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유아학교 교사는 행정상으로 초등 1단계(Cycle 1) 교사로 분류되는데, 초등학교와 유아학교의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교직 전문 석사과정(Master MEEF – 교육 및 교직 분야 석사)에 진학하고, 석사 2학년에 해당하는 M2 과정 동안 전국 단위 교원 임용시험(concours de recrutement de professeurs des écoles, CRPE)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합격자는 1년간의 '임용 후 보자(인턴)'로서 근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사(Professeur des écoles)로 임명됨.
  - 석사과정을 살펴보면, 3-11세까지를 포괄하는 단일 교원 자격 체계로, 유아부터 초등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교육을 다루며 '아동발달심리, 교육사회학, 교수법'과 같은 기초이론과 함께 교과 교육방법론, 교육 실천과 관련되는 학급 경영법이나 평가 방법, 특수교육 이해 등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됨.
  - 이론 수업 외에도 관찰 실습과 교육실습이 다수 배치되며,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한 논문 작성도 요구되어 예비 교사들이 실습 경험을 이론과 연계하여 성찰하도록 하는 훈련도 포함함.

표 2 프랑스 영유아 교사의 학력 및 자격에 의한 유형 구분

구분	보육 보조인력 (0-3세 담당)	보육교사 (0-6세 담당)	유아학교 교사 (3-5세(12세까지 가능))
ISCED 학력수준	ISCED 3 고교 졸업(또는 동등 수준)	ISCED 6 학사 수준	ISCED 7 석사 수준
필요 자격	CAP AEPE 직업자격 또는 보육조무사 DEAP 국가자격 (별도 학위 필요 없음)	유아교육교사 국가자격 (Diplôme d'État EJE) – 학사학위 동등	초등교사 국가자격 (Prof. des écoles) – 석사 학위 및 교원임용시험 합격
양성과정	고교 직업과정 2년(CAP) 또는 전문교육 1년(DEAP 과정) + 현장실습 필수	전문 교육기관 3년 과정 (현장실습 포함) + 과정 평가 통과	일반 대학 3년 + 교직석사 2년 (교육실습 포함)
비고	보육시설 보조교사로 활동 가정 보육교사는 별도 인가 및 단기교육 필요	주로 보육시설에서 근무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사로 임용 유아학교 학급과 초등학년 담당 가능

주: 유아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로 대부분(약 95%)이 공립임.
자료: Rayna, S. (2024). France: ECEC workforce profile. In P. Oberhuemer & I. Schreyer (Eds.), Early childhood workforce profiles across Europe: 33 country reports with key contextual data. State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Media Literacy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 유아학교 교사에 대한 높은 학력 요건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원 충원의 지리적 불균형이 교육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음.
  - 또한 0-2세 보육 영역 종사자 중 보육교사(EJE)는 담임교사로서 일반 학사학위 소지자임에도 유아학교 교사보다 자격 기준이 낮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등 유보이원화 체제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 간 자격 및 처우 격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프랑스는 교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석사 수준의 교사 자격 제도와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양성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OECD, 2020b; 2021a).

다. 교육과정

- 프랑스는 공교육의 시작을 유아학교로 보고, 유아학교(3년)를 '기초학습 주기(Cycle 1)', 초등학교 1-3학년은 '기본학습 주기(Cycle 2)', 초등학교 4-5학년은 강화학습 주기(Cycle 3)로 구분함(프랑스 한국교육원, 2022).
  - 프랑스 교육과정은 유아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지식·능력·문화의 공통 기반(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de compétences et de culture)'을 제시하여 일관된 교육 목표를 추구함(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23).
  - 공통기초역량은 의무교육 기간(만 3세-16세)에 모든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핵심 역량을 규정한 것으로, ① 사고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언어 활용 능력, ② 학습을 위한 방법과 도구, ③ 개인의 성장과 시민의식 형성, ④ 자연 및 기술체계에 대한 이해, ⑤ 세계와 인간 활동에 대한 표현과 이해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됨.
  - 공통 역량 지침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 당시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아학교의 교육과정은 '언어, 수리적 사고, 신체활동, 예술·창의, 세계에 대한 탐구'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됨(European Commission, 2026).
-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두 학교급 간의 내용과 목표의 일관성을 높이고, 연속성과 누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앞서 언급한 공통의 기초역량(예: 언어, 사회성 등)을 공유하는 교육과정 마련함. 학년군 기반 순환제(cycle)를 통한 계열성 확보, 유아학교에서의 성취 정도를 초등교사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기록부의 정보연계 체계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6;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23).

-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에의 적응과 초등교육에서의 기초 학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읽기와 수리력의 기초(말하기/듣기 능력(구두 언어 능력), 소리와 글자 인식, 수 개념 등), 사회적 규범 익히기, 호기심과 집중력 기르기 등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둠(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23).

- 급식 등을 포함해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있는 장시간의 유아학교 생활이 유아에게는 지나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Montagner, 2008), 놀이보다 학업 중심 활동에 치중할 우려 등 이른 '학교화(schoolification)'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음(Garnier, 2011; McKenna, 2018). 그럼에도 프랑스는 놀이를 중심으로 한 학습 원칙을 추구함을 표방하고 있음(OECD, 2021a).

- 교육과정 중 디지털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유아기 디지털 노출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교사 양성 및 유아학교 교육과정에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활용에 대한 내용을 강조함.

  -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유아가 디지털 도구의 기본적 조작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위험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유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창작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OECD, 2023b).

  - 유아학교 교육과정(école maternelle, Cycle 1)에서 관련 요소를 찾아보면, 디지털 도구를 학습의 목적과 활용 방식이 명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스스로 쓰기를 해볼 때 컴퓨터에 단어, 문장, 텍스트를 입력해보면서 구어와 글자 간의 관계를 익히도록 하거나, 주변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검색을 해볼 수 있다거나, 다양한 도구와 사물의 조작법과 용도를 익히는 차원에서 컴퓨터나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내용이 언급됨(Gilger, 2015).

라. 유-초 연계

- 프랑스는 유아학교를 초등학교와 동일한 학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초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교사가 동일한 양성과정을 거치고 자격을 공유하므로, 교수법의 연계와 상호 이해도가 높은 편임(OECD, 2017; Rayna, 2024).

  - 또한 많은 유아학교가 초등학교와 밀접히 협력하거나 병설 운영되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초등교육과정으로 이행하는데 유리함(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 2014). 이러한 연속성은 아동의 학습 및 사회적 적응에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OECD, 2017).

- 프랑스 교육부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유-초 연속성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6),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거나 교차 수업이나 시설 견학 등 사전 활동을 통해 아동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있음.

  - 예컨대 한 초등학교에서는 유아학교 마지막 학년 어린이들이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1학년 교실에서 쓰기와 수학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새 학교 환경과 교사들의 얼굴을 미리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보고되었음(Académie de Nantes, 2019).

  - 유아학교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발달을 연속적으로 관찰·기록하여 수시 관찰과 형성평가를 '학습추적수첩(carnet de suivi)'에 기록하고, 5세 종료 시 국가 공통 양식의 "학습 성취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초등

교사와 학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초등학교로의 정보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유-초 연계를 위한 또 다른 노력은 교원 대상 현직 연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프랑스의 유아학교 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는 동일한 자격을 가지므로, 현직교사 연수(In-service training)도 별도로 나뉘지 않고 통합 운영됨.
  - 교육청 산하 교원연수기관이나 지역 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하는 직무연수는 특정 주제에 따라 학년군(주기, 사이클) 또는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유아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읽기 지도법 연수나 생활지도 연수의 경우 유아학교 마지막 학년인 5세(grande section) 교사부터 초등 저학년 교사까지 모두 대상이 되어 공동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여 이러한 공동 연수를 통해 유아에서 초등으로 이어지는 교수법의 일관성을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연계성을 높임.
  - 프랑스 교육부는 유아학교와 초등 간의 교사 협력을 위해 교육구별로 순회 유아교육 전문지도교사(교사 컨설턴트)를 두어 두 학교급 교사들이 연합 연수를 진행하도록 장려함.
- 단위 학교 차원의 유-초 연계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 단위에서 유아학교와 초등학교가 같은 건물에 있거나 인접해 있는 경우 교사들의 협력 활동이 활발하며, 통합형 école primaire(유-초 통합학교)일 경우, 교사들이 한 교무실을 사용하므로 자연스럽게 공동 교육연수를 기획하거나 교수법을 함께 연구함.
  - 유아학교와 초등학교가 별도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공식 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근 학교 간 자율적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환 학년으로서만 5세-초등 1학년(GS-CP) 연결활동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유아학교 교사와 초등 1학년 교사가 함께 준비하고 지도 계획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고됨.
- 교육구별로 교사 협의회(réseau d'écoles)를 구성하여, 한 지역의 유아학교 교사들과 초등교사들이 정기 모임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계획을 공유하거나 문제 사례를 협의하기도 함.
  - 특히 교육우선지역(ZEP/REP)의 경우, 학업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인력 투입(예: plus de maîtres que de classes 제도)이나 근무시간 감축 등을 제공하면서 교사들이 팀 협의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같은 학교 또는 인근의 유아·초등교사들이 함께 모여 교육과정 상호연계, 학생 개별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있음.
- 한편 소규모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유-초 통합학교가 유-초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합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데, 매년 통합학교 수는 늘어나는 반면 단독학교 수는 줄어들고 있음.
  - 특히 학생 수 감소 지역에서는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단독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통합하는 사례가 많지만, 오히려 이런 행정 통합이 교육과정의 연속성 강화에도 도움을 주어, 교원들이 한 학교 내에서 유아부터 초등까지 협업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프랑스 내에서 지역 편차는 존재하지만 파리 등의 대도시의 경우는 유아학교와 초등학교가 분리된 단설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학생 규모가 작은 교외 지역과 지방은 유아학교와 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유-초 통합학교(école primaire)가 증가하고 있음.
  -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모두 공립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초 통합학교 자체적으로는 사립의 비율이 높은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종교재단 등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유아부터 중등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
  - 프랑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 운영 비율은 공립 약 20-30% 수준(지역차 존재), 사립은 90% 이상으로 보고되는데, 통합형 학교(école primaire)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행정적 효율뿐 아니라 유아학교-초등학교 간 연계 강화라는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하

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음(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6).

마. 유-보 연계

- 프랑스는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로 인해 0-2세는 보건부 관할의 보육기관, 3세부터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이원화되어 영아기(보육)와 유아학교 간 단절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짐(France Stratégie, 2018).
  - 프랑스의 유-보 연계를 위한 모델로 연계학급(classe passerelle)이 운영되어 왔는데, 연계학급은 2세 영아들이 가정(또는 보육기관)에서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로 원활하게 전환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전이 학급을 의미함(Villain & Gossot, 2000).
  - 1990년 보건부·교육부 공동 협약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공교육 체계 내에서 유아학교와 초등 공통의 교원 자격을 가진 유아학교 교사(professeur des écoles)가 담임으로 배치되고, 보육교사(EJE)나 보조교사(ATSEM)가 함께 팀을 이루어 2세 영아 대상 학급을 운영함(Rayna, 2024; Villain & Gossot, 2000). 이러한 프로그램은 양측 교직원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어린이들이 낯선 학교생활로의 점진적인 적응과 원활한 전환을 지원함(Havette & Moriceau, 2013).
  - 2세 영아의 취학이 의무는 아니지만, 유아학교 공교육 체계 내에서 무상으로 운영되며, 어린이들은 오전에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단계적 이행 프로그램을 거침(Havette & Moriceau, 2013).
- 프랑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2세 조기교육을 강조하여, 교육우선지역(ZEP) 등을 중심으로 2세 유아학교 취원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임.
  - 1990년대 후반 한때 2세 아동 3명 중 1명이 유아학교에 다닐 정도로 조기 입학이 활발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년대 중반에는 10%대까지 하락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세반(TPS) 증설을 장려했고, 그 결과 교육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세 취학률이 약간 상승함(France Stratégie, 2018).
  - 조기 취학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프랑스 전략청(France Stratégie)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Agacinski & Collombet, 2018), 2세 입학의 효과가 3세 입학 대비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교육의 질과 적절한 적응 지원이 동반되어야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노출의 조기화보다는 0-2세 보육과 3-5세 유아학교 간 "연속성 있는 양질의 경험"이 중요함을 시사함.

③ 잉글랜드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가. 유아교육·보육 제도 및 현황

- 잉글랜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통합을 이룬 국가로, 현재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에서 총괄하고 있음(OECD, 2017).
  - 잉글랜드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이하 유아교육기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다양한 민간 주체(민간 사업자, 비영리 단체, 기업 등)에 의해 설립된 사립·민영 보육기관(private, voluntary, & independent nurseries)으로 0-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둘째가 가정 보육시설(childminder, 0-4세), 셋째가 공립 유아학교로 만 3-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함.
  - 유아학교는 초등학교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설립된 경우(maintained nursery schools) 또는 초등학교 내 병설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nursery classes in primary schools)임(DfE, 2025a; 2025b).

표 3 잉글랜드 교육체계

교육부 관할		
0-4세	4-5세	5-6세
유아교육·보육	준비학년·학급(reception year, class)	초등학교 1학년

자료: 1)-3)번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1)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a).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tatutory framework for childminders: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UK Government.
2)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b).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tatutory framework for group and school-based providers: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UK Government.
3) OECD. (2017).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76253-en (2026. 8. 26. 인출)

- 잉글랜드의 유아교육기관은 대다수 사립이며, 보육적인 성격이 강한데, 2021년 기준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이 가정보육시설(childminder)이고, 나머지 중 약 34%는 민간 또는 지역사회 집단 보육시설이며, 공립 유치원/유아학급은 전체의 약 15% 정도에 불과함(DfE, 2021a).
  - 영유아 취원율(이용률)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전체 등록 정원의 약 65%가 민간 보육시설에 있고, 23%만이 공립 유아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며, 나머지 약 12%는 가정보육시설(childminder)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DfE, 2021a).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는 유아교육기관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여 3-4세 아동에 대해 주중 15시간의 무상 교육·보육서비스를,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서비스를 제공함(Foster, 2024; OECD, 2020a).
  - 공사립기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부 학교 기반 유아교육기관은 주당 15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취업 가구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기도 함(Paull & La Valle, 2018).
  -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여 점차적으로 30시간까지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유아학교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이며, 2024년부터 무상 지원 대상을 2세아 및 9개월 이상의 영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음(Foster, 2024).
- 잉글랜드는 유보통합을 통해 행정 및 재정 관할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 서비스(주당 15-30시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 부문이 주를 이루고 공립기관 이용률은 낮아 무상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보육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음.
  - 잉글랜드를 포함하는 영국은 전체 ECEC 재원 중 민간재원의 비율이 약 40%로, 이는 프랑스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공공재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대비됨(OECD, 2023a).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인해 지역·시설 간 재정 격차와 서비스 편차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공립 유아교육기관이 드문 지역에서는 부모가 높은 비용을 내고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가계 부담과 접근성의 불평등이 문제로 지적됨(OECD, 2020a).
  - 2020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종일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주로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용이 매우 높아 보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용 제약으로 나타남(OECD, 2020a).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보육료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기관의 운영난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함. 요컨대 잉글랜드는 행정적으로 유보를 통합하였으나, 시장 중심 공급 체계로 인한 재정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됨.
- 잉글랜드는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이르게 5-6세에 초

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며, 4-5세에 준비학년(reception year)을 운영하고 있음.

- 이른 초등학교 입학과 이에 따라 4세 준비학년 과정도에서도 학업에 초점을 둔 활동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발달심리학자들의 비판이 있어 왔고, 출생월이 늦은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함(차기주, 2021).

나. 교사[4)]

- 잉글랜드에서 영유아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① '보육 보조교사(Early Years Practitioner, EYP (Level 2)와 Early Years Educator, EYE (Level 3)를 포함)', ② '유아교사(Early Years Teacher Status, EYTS)', ③ '공립 교사(Qualified Teacher Status, QTS)'의 3가지로 분류됨(Foley & Roberts, 2025).
- 보육 보조교사(EYP)는 만 16세 이상 개인(고등학교 졸업 필수 아님)이 사설 교육기관(training provider)이나 직업학교(colleges)에서 6개월-1년에 걸쳐 기초 보육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50시간 이상)을 수행하면 취득하게 됨.
  - 보육 보조교사는 교육감독청(Ofsted)에서 관리하는 영유아 대 교사 비율에 산정되지 않고, 오로지 실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서 근무가 가능함.
  - 보육 보조교사 이수 과정에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보육교사(Early Years Educator, EYE)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보육교사는 교육감독청에서 관리하는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산정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로 인정되지 않음. 기관에서 담임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연령 그룹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책임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에서 주임교사(lead teacher)는 될 수 없음.
- 유아교사(EYTS)는 중등교육 졸업시험(GCSE) 영어·수학·과학 과목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갖춰야 하고, 대졸자의 경우 별도의 1년인 초기교육 교사 양성과정(Early Years Initial Teacher Training, EYITT)을 이수하거나 학부 단계에서 유아교육 관련 학위를 이수함으로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사는 사립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취득 시 5세 이하만을 가르칠 수 있는데, 공립 유아학교 학급에서는 '보조교사'로 근무할 수 있음.
- 공립교사(Qualified Teacher Status, QTS)는 교육학 학사 혹은 교육학 관련 석사 학위 취득 및 교육실습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교육대학 학사과정(B.Ed)이나 교육학 학사/과학 학사 학위과정을 QTS 과정을 포함하여 3-4년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거나, 일반 학사 졸업 후 1년짜리 교육대학원 과정(PGCE)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QTS는 국가에서 부여한 교사 자격으로 공립 유아학교(3-4세)와 준비학년(reception year, 4-5세) 및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 근무할 수 있음.
- 잉글랜드에서 전통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했던 QTS 자격과 달리 유아교사(EYTS) 자격은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새롭게 도입된 자격체계로, 유아기에 특화된 교사 전문 자격 제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QTS와 동일한 교사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함(DfE, 2021b).
  - 유아교사(EYTS)와 공립교사(QTS)는 동등한 학사학위(ISCED 6)를 가지며, 유아교사가 공립교사에 비해 영유아 발달과 놀이 중심 교수법 등에 특화된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처우와 복지에서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경력 발전이나 급여에서도 차별이 존재함(Foley & Roberts, 2025).

4) 해당 내용은 Foley, N., & Roberts, N. (2025). Childcare workforce in England.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No. 9948,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948/CBP-9948.pdf (2026. 8. 28. 인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유아교사(EYTS) 자격 소지자는 초등 이상을 가르칠 수 없으나 공립교사(QTS) 자격 소지자는 유아도 가르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Foley & Roberts, 2025; Lumsden, 2024). 이로 인해 유아교육·보육으로 우수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곧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됨(Education Policy Institute, 2019).

표 4 잉글랜드 영유아교사의 학력과 자격

구분	보육 보조교사(EYP, EYE)	유아교사(EYTS)	공립교사(QTS)
ISCED 학력수준	ISCED 3 고교 졸업(또는 동등 수준)	ISCED 6 학사 수준	ISCED 6 또는 7 학사 또는 석사 수준
필요 자격	보육실무 Level 2-3 자격 (Early Years Practitioner, Level 2/ Early Years Educator, Level 3)	Early Years Teacher Status (EYTS, 학사 필수)	QTS 필수 (국가공인, 국가 교사평가 통과)
양성과정	GCSE(영어·수학 필수) + 단기 연수 과정 및 보육 실무교육 (6개월-1년)	학사 학위(유아교육 관련 학위), 기타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교육부 인정 자격 과정 이수 (Early Years Initial Teacher Training (EYITT), 1년)	학부 3-4년 과정(QTS 포함) 또는 학사 후 교직석사(PGCE, 1년)
비고	담임교사의 보조 역할 (Nursery Assistant) 및 실무 담당, 법적 교사로 인정되지 않음	사립 보육시설의 0-4세 주 담임교사 가능, 공립 리셉션 학급의 보조교사 역할 가능	공립 리셉션 학급(4세)부터 초등 전 학년 담임교사 가능

자료: 1) Foley, N., & Roberts, N. (2025). Childcare workforce in England.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No. 9948,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948/CBP-9948.pdf (2026. 8. 28. 인출)
2)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b).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tatutory framework for group and school-based providers: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https://www.fis.cityoflondon.gov.uk/asset-library/eyfs-framework-for-group-and-school-based-providers.pdf (2026. 9. 9. 인출)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공립교사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로, 임금과 복지가 전국 단위로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는데, 영국의 초등 신임교사 초봉은 2023년 기준 약 £28,000-£32,590(한화 약 4,550-5,290만원) 정도이며 경력에 따라 £40,000대 중반(£42,000, 한화 약 6,820만원)까지 상승하며(Lumsden, 2024), 연금 가입, 휴가 및 병가 보장 등 복리후생도 갖추어져 있음(DfE, 2024).

- 반면, 잉글랜드 영유아교육·보육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하지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Flemons & Worth, 2026). 또한 EYTS 자격 취득에 따른 보수 인상이 보장되지 않으며,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학교 기반 기관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제기됨(IFF Research, 2025).
- EYTS를 갖춘 유아교사의 경우 일부 사립유치원이나 유아학교에서 교사로 채용되어 £27,000-£40,000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례도 있으나 대다수 유아교사가 근무하는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고용 안정성도 낮은 편임(Lumsden, 2024).

종합하면, 현재 잉글랜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고자격 교사와 저임금 보육인력이 혼재하고 있고, 학력수준이 동일함에도 공립교사(QTS) 자격 소지자와 유아교사(EYTS) 자격 소지자 간 처우 격차가 존재하며,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제한된 승진 기회 등으로 인해 영유아

교직원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상승이 문제로 지적됨(Education Policy Institute, 2019).

- 정부와 의회도 이러한 격차를 인식하여 유아교육·보육 인력의 지위 향상과 임금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음(House of Commons Education Committee, 2019).

다. 교육과정

- 잉글랜드는 0세부터 준비학년까지 기초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에 해당하는 통합 교육과정(Early Years Framework)이 적용되고, 초등 1학년부터는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 적용됨.
  - 2008년 도입된 EYFS는 영아부터 유치원에 이르는 연속적인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로, 놀이 중심의 활동 속에 의사소통·신체·문해·수리 등의 발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2021년 개정된 기초단계(EYFS)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별 아동의 특성에 기반한 관찰 중심 평가와 함께 비판적 사고력, 언어 소통, 자조 능력, 사회·정서 발달, 탐색과 표현 능력 등과 같은 전인적 역량 발달을 중심으로 운영됨(DfE, 2021c).
  - EYFS 교육과정은 3개 기초 영역(의사소통과 언어, 신체발달, 개인·사회·정서 발달)과 4개 구체 영역(문해, 산술, 세계이해, 표현예술)으로 구성된 총 7개 영역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관계 형성, 자기조절, 집중력, 탐구 능력, 사회적 소통 기술 등 전인적 능동적 학습자(active learner)로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둠(Pascal, Bertram & Rouse, 2020). 202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이해(understanding the world)' 영역 내 '기술(technology)' 영역이 삭제되고, 온라인 안전(online safety)과 관련 내용만 유지됨(DfE, 2025a; 2025b).
- 통합 교육과정 도입은 유보통합의 큰 성과로서, 이전까지 분절적이던 보육과 교육내용이 일관된 철학과 목표하에 일원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OECD, 2020a), 5세에 시작하는 초등학교 Key Stage 1과도 접목되도록, 5세 종료 시점에 early learning goals를 설정하여 초등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있음(DfE, 2021c).
  - 이러한 체계는 유아가 자연스럽게 초등 학습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어린 시기부터 학습적 압박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도 있는데, 만 4-5세 유아가 초등 입학 직전까지 알파벳 인지나 숫자 등을 습득해야 하는 평가 체계에 대해 일부 유아교육계는 발달적 적합성을 우려함(Williams, 2018).
  - 국제 비교 연구에서도 5세 조기 입학 국가들에서 유아기의 형식교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OECD 평균으로도 학교 시작 연령은 6세가 더 일반적임(OECD, 2017).
- 잉글랜드 정부는 초등 입학 전 단계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 및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취학 전 유아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교육감독청과 같은 기구를 통해 모든 유형의 유아교육기관에 공통의 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 이후 다양해진 기관들의 프로그램 질을 감독·평가함(Ofsted, 2021).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관 유형과 재정 여건에 따른 교육 질 격차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예컨대 공립학교 부설 유치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고 교육환경이 체계적인 반면, 영세한 사립 보육시설은 인력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임(Education Policy Institute, 2019).
  - 이에 잉글랜드에서는 유보 일원화로 공통 교육과정과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한 점은 성과로 평가되나, 현장의 질 균등을 달성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지원과 감독이 계속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음(OECD, 2021b).

라. 유-초 연계

- 잉글랜드 영유아기 교육과정 EYFS은 놀이 중심을 표방하는 것과 달리 초등교육과정(Key Stage 1부터)은 읽기·쓰기·수학·과학 등의 과목별 성취 목표를 제시하는 등 교과목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두 학교급 간 교육과정의 구조 및 철학이 달라 교육환경 및 교수법의 급변

으로 인한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한 연속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실제로 많은 유아들이 준비학년에서 불과 몇 주 뒤인 초등 1학년 진급 시, 교실 분위기와 기대치의 큰 변화를 겪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유아-초등 간 단절'을 극복하고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잉글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적 연계 장치는 다음과 같음.

1) 프로파일 평가

- 준비학년의 종료 시기에 EYFS 프로파일(profile)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는 유아가 5세가 되는 학년도 말(초등 1학년 시작 전)에 17개 early learning goals 도달 수준을 교사가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교사는 유아가 기대 수준에 도달했는지(expected) 혹은 발현 중인지(emerging)를 판단하여 작성함(DfE, 2021c).

  - 이 프로파일의 주된 목적은 각 유아의 발달 상황을 초등 1학년(Year 1) 교사와 공유하여 원활한 교수 연계를 돕는 데 있으며, 프로파일 결과는 유아교사와 초등교사가 함께 논의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초등교사가 개별 유아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1학년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DfE, 2021c).

2) 교육과정의 연계

- 교육과정 문서에서도 유아와 초등 간의 연계를 반영하는데, EYFS 교육과정에서 초등과의 연계를 위해 문해·수리의 기초(예: 파닉스 기초, 숫자 세기 등)를 다루도록 하고 있음.

  - 교육감독청도 유-초 연계에 주목하여 준비학년의 교육 내용이 초등 준비에 충분한지 점검하여 놀이 중심 접근과 학습 성과 간 균형을 강조함(Ofsted, 2017).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와 지침 마련 등의 노력 이외에 지방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는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Ofsted, 2017).

  - 초등학교들은 유치원 교실(EYFS)과 1학년 교실 간 전이(transition)를 원활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학년 담임이 준비학년(리셉션) 교실을 방문하거나 리셉션 아동들이 미리 1학년 교실을 체험해 보는 견학을 진행하고, 리셉션 교사와 1학년 교사가 학년말에 모여 개별 아동의 학습 파일과 평정 결과를 인계함.

  - 초등 1학년 교육과정에 놀이 중심 활동시간을 두거나 학년 초반에 몇 달간 EYFS식 영역별 학습 공간으로 교실 환경을 아동 친화적으로 구성하는 등 교육과정 연계를 실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지방 차원에서는 유-초 전이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등교사들이 유아 발달과 EYFS 철학을 이해하도록 함(Ofsted, 2017).

4 스웨덴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가. 유아교육·보육 제도 및 현황

- 스웨덴은 1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기관(Förskola, 포슐라)이 있고, 6세에 시작하는 준비학년(Förskoleklass) 1년 과정을 거쳐,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사체제를 갖추고 있음. 준비학년부터 통합형 초·중학교(Grundskola, 1-9학년)까지가 의무교육에 해당함(European Commission, 2023).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스웨덴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큰 특징으로 과거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을 1996년 통합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1998년 새로운 교육법을 도입함(Schreyer et al., 2024).

  - 유보통합을 통해 공통의 국가수준 교육과정(Läroplan för Förskolan)을 마련하고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공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담보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Schreyer et al., 2024).

- 스웨덴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포슐라(förskola)와 그 외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 보육시설(familjedaghem),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유치원(öppen förskola) 등이 존재함(Lohmander, 2024; Schreyer et al., 2024).
  - 대부분의 영유아는 전일제 유아교육기관인 포슐라에 다니며, 포슐라의 대다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기관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함.
  - 나머지 약 20%는 학부모 협동조합, 민간 기업, 비영리기관 등이 운영하는 형태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독립기관(private/independent)으로 구성됨(Schreyer et al., 2024).
- 2022년 기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21%만이 민간 운영기관에 재원 중인데, 이는 OECD 평균치(32%)를 크게 밑도는 수준임(Schreyer et al., 2024).
  - 사립기관에도 아동 1인당 바우처 형태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어 공·사립 모두에 공평하게 투입되는데, 대신 모든 유아교육기관은 지원금을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청의 관리·감독을 받음(Carlbaum et al., 2025).
  - 스웨덴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는 공·사립 동일하게 투입되는 공적 자금과 그에 따른 사립·민간 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를 통해 높은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립 동일하게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립 유아교육기관도 사실상 공적 체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유아교육기관 입학 기준은 1세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육아휴직이 생후 약 12개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유아교육기관 이용이 시작됨.
  - 법적으로는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신청 후 최대 4개월 이내에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5).
- 연령에 따른 기관 이용률(취원율)을 보면, 1세 아동의 약 절반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2세 아동의 참여율은 80% 이상으로 올라가며, 3-5세 아동은 95% 이상이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보편적 취원율을 나타냄(European Commission, 2023; Schreyer et al., 2024).
  - 2022년 기준으로 1-5세 아동의 약 85%가 공식 유아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고(OECD, 2021a), 특히 4, 5세 아동의 경우 거의 모든 아동(약 95%)이 유아교육을 받고 있음(OECD, 2023c; Schreyer et al., 2024).
- 이러한 높은 취원율은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성 보장 정책의 결과로, 스웨덴은 OECD 평균(GDP 대비 0.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대규모 공적 재원(GDP 대비 1.6%)을 유아교육·보육에 투자하며 학부모 부담을 낮추고 있음(OECD, 2017; 2021a).
  - 부모의 소득 및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5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주당 15시간, 연 525시간의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 도입된 상한제(maxtaxa)에 따라 부모는 소득에 비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은 유아교육기관 이용료로 지불하지 않으며, 차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European Commission, 2025).

나. 교사

- 스웨덴은 2013년부터 교사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모두 정규 임용을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European Commission, 2024),스웨덴의 국가공인 교사자격증은 연령 범위에 따라 1-5세와 준비학년(6세)을 담당하는 유아교사 자격증, 준비학년과 초등 1-3학년을 담당하는 초등 저학년 교사 자격증, 초등학교 4-6학년을 담당하는 초등 고학년 교사 자격증으로 구분됨(European Commission, 2024).
  - 준비학년의 경우는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전이 단계로 유아교사와 초등 저학년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모두 담당할 수 있으며, 준비학년은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지만, 2022년 기준 준비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의 약 46.2%가 유아교사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Lohmander, 2024).

- 국가공인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지정된 교사 양성기관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아교사의 경우는 수학 연한이 3.5년, 초등교사의 경우는 4년임.

- 유아교사(Förskollärare) 자격증 소지자 외에도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보육 보조교사(barnskötare)가 있는데, 유아교사는 학사과정 동안 교육학 이론 60학점, 유아교육 관련 교과 및 교과교육학 120학점, 교육실습 30학점 등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하게 됨.
  - 반면에 보육 보조교사는 중등교육(고등학교) 단계에 해당하는 약 3년의 직업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이수하고 유아 돌봄에 대한 자격을 취득함(European Commission, 2025).
  - 그 외 관련 학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학급에서 영유아의 급식과 위생 관리, 환경 정비, 기타 지원 등의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무자격 보조인력이 존재함.
- 2022년 기준으로 스웨덴 유아교육과 보육 종사자의 약 40.7%가 유아교사 자격 소지자, 약 17%가 보육 보조교사 자격 소지자이며, 나머지 약 35% 이상은 무자격 보조인력 등으로 집계됨(Lohmander, 2024).
  - 스웨덴 정부는 유자격 교사의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교사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교사 수급 부족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유보통합 이후 보편적 유아교육 달성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수를 급격히 확장한 것,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숙련된 교사 인력이 대거 퇴직한 것,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임금 등 처우에서 교직의 매력성이 떨어져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것 등이 꼽힘(Lohmander, 2024).
  - 정식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정부는 모든 유아교육기관에 유아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한 명 이상 근무하도록 법적 기준을 낮추었으며(European Commission, 2025). 일부 유치원에서는 부득이하게 유아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늘리거나 보조인력(barnskötare)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5; Lohmander, 2024).
- 교사 수급 부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임금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스웨덴의 일반 학사학위 소지자 평균 월급은 약 37,500-38,500 크로나(약 560만-580만원) 수준인 데 반해, 유아교사 평균 월급은 약 34,900 크로나(약 523만원), 경력자 평균은 36,000 크로나(약 540만원), 신규 초임은 약 31,500 크로나(약 473만원) 수준으로 학사학위 소지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은 편임.
  - 보육 보조교사(barnskötare)의 경우 평균 월급은 약 26,649 크로나(약 400만원)로, 유아교사보다 상당히 낮으며 전국적으로는 26,000-30,100 크로나(약 390만-450만원)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남.
  - 초등교사의 경우도 유아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 학사학위 소지자 전체의 평균 수준 임금에 그쳐 유아교육과 보육뿐 아니라 초등을 포함한 교직으로의 새로운 인력 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ohmander, 2024).

다. 교육과정

- 스웨덴은 1세부터 초등 취학 전까지 공통 적용되는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1998년 최초로 제정된 유아기 교육과정(Läroplan för förskolan)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놀이를 기반으로 한 접근 속에 전인적 발달 목표를 담고 있음. 스웨덴의 유아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역량 중심 접근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스웨덴의 유아교육과정은 지식(content)과 더불어 역량(competencies) 및 가치 함양을 중시하는 전인적 목표(curriculum goals)를 지향해왔고(최은영 외, 2024; Schreyer et al., 2024), 언어발달, 수리적 사고, 예술적 표현, 자연 탐구, 신체 발달, 민주적 가치와 같은 영역별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놀이와 일상 경험 속에서 종합적으로 함양하도록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유아의 자율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을 중시함(최윤정, 2014).

- 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 직접적 교과 연계를 강조하기보다 평생학습의 기초로서 호기심, 협동심, 자기표현력 등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최은영 외, 2024).

2018년 개정된 스웨덴 유아교육과정에는 유아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목표가 뚜렷하게 포함되어 있었는데(Skolverket, 2019), 2025년 개정에서는 디지털 학습도구의 사용 요구를 삭제하고 디지털 활용에 보다 제한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관점으로 선회함(Skolverket, 2025).

- 2018년 개정된 스웨덴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가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화를 이해하고 적절한 디지털 역량을 기르며, 디지털 기술에 대해 비판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강조하였음. 또한 디지털 도구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하여 창작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였음(Skolverket, 2019).
- 그러나 2025년 개정에서는 디지털 학습도구의 사용을 요구하는 방향을 조정하고, 아날로그 학습도구를 우선하는 한편 책 읽어주기, 언어발달, 놀이와 신체활동을 더욱 강조하였음. 학습도구를 선택할 때는 아동의 여건·연령·성숙도를 고려하며,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날로그 도구만 사용하고, 그 이상 연령에서도 디지털 도구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권고함. 이와 함께 교사와 기관장이 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실천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방법과 학습도구를 선택할 책임을 강조하였음(Skolverket, 2025).

스웨덴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는 실내·외 자유놀이, 소집단 활동, 식사 및 휴식 등 보육과 교육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교사는 놀이 상황에서 개별 어린이의 발달을 관찰하고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함.

- 이러한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은 어린이의 흥미를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됨(백선정, 2016).

초등교육과정에서도 교과 지식 습득과 함께 학생의 핵심 역량 함양을 강조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 2022년 개정된 초등교육과정은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책임과 영향력, 사회와의 관계, 전인적 성장 등을 주요 목표로 명시하여, 단순한 학력뿐 아니라 다양한 역량의 발달을 지향함. 이에 스웨덴 학제 전반에 걸쳐 역량 중심 접근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Lohmander, 2024).

라. 유-초 연계

1) 준비학년(Förskoleklass) 제도의 시작과 운영

6세에 시작하는 준비학년(Förskoleklass)은 스웨덴 교육체제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제도로,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7세에 초등학교를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취학 전 1년을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활발해지며, 1998년에 처음으로 준비학년 제도가 도입됨(Lohmander, 2024).

- 당시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스웨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6세 교육 기회를 공식화하면서도 놀이 중심의 학습 환경을 유지하며 초등학교 생활에 필요한 준비도를 함양하는 취지로 시작됨(Lohmander, 2024).
- 운영 방식은 초등학교에 통합된 별도의 학년 형태로 도입 시에는 무상교육이나 의무는 아니었으나 2018년부터 의무화되어 현재는 모든 6세 아동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됨(European Commission, 2023; Lohmander, 2024).

준비학년은 주로 초등학교 내에 학급 형태로 설치되어 초등 1학년과 같은 학교 환경에서 진행되는데, 하루 약 3시간 내외의 수업이 이루어지며(학년도 전체 525시간 기준), 나머지 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방과후 돌봄 시설(fritidshem)을 이용할 수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3; Lohmander, 2024).

- 교육내용은 언어와 의사소통, 기초적인 수·논리 개념, 자연과 사회 탐구, 신체활동, 예술적 표현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며, 이를 가르치는 방식은 유치원의 연장

선에 가깝게, 놀이, 탐구,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스웨덴 교육과정은 준비학년을 통해 유아교육의 기본 가치와 초등학교의 목표를 연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립 준비학년 교사는 실제 2022년 기준으로 약 46.2%가 유아교사 자격자, 27.6%는 초등교사 자격자로 구성되어 있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의 교육적 연계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됨(Lohmander, 2024).

-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연계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에는 연계에 관한 명시적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데, 2016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 모두에 '전이와 협력(transition and co-operation)' 관련 단원이 신설·강화됨(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6).

  - 이 단원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준비학년 간, 준비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 간 내용 연계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교사가 책임져야 할 사항과 기관장(원장·교장)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유아교육기관은 초등학교 및 방과후 활동기관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이 전에 관련 기관들이 교육내용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여 아동의 학습에 일관성과 연속 및 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을 강조함.

  - 또한 "유아교사는 초등교사와 협력하여 교육내용과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역시 교사가 "유아교사와 협력하여 아동의 학습 연계성을 높이고, 초등 전이에 앞서 아동과 학부모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장은 "준비학년과 학교, 방과후 활동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것"을 의무로 함. 이러한 교육과정 구조는 유아기 교육목표가 초등 시기로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데 일조함(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6).

2) 최근 동향: 준비학년(Förskoleklass) 제도 폐지 및 초등 입학 연령 조정 논란

- 스웨덴 정부는 2028년부터 준비학년을 폐지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흡수하여 공식적인 초등교육을 6세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2024년 발표하고(Bryant, 2024. 9. 19.), 2025년 6월 관련 법률안을 의결함(Utbildningsdepartementet, 2025. 6. 18).

  - 관련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8년 가을부터 10년제 의무학교 체제가 적용될 예정임. 정부와 일부 관계기관은 이러한 개편이 학교유형 간 전이를 줄여 학습의 연속성을 높이고,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본 기술을 더 일찍 가르쳐 학업 성취를 높이고, 행정 운영상으로도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함(Utbildningsdepartementet, 2025. 6. 18).반면 일부 유아교육·교육학 연구자들은 6세 아동의 형식적 학교교육 편입이 놀이 기반 교수법과 발달적 요구의 존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음(Bryant, 2024. 9. 19.).

- 초등 입학 연령에 대한 국제 비교와 사회경제적 평가를 보면, 6세를 공식 학령으로 채택한 나라는 OECD 다수국에 해당하며, 7세 시작은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일부임. 국제 비교 연구들은 입학 연령 자체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함.

  -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7세 입학이더라도 15세경의 학업성취(PISA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왔으며, 이는 유아기 양질의 교육을 보장한다면 입학 연령이 늦어도 학업 손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OECD는 초기교육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강조하면서도, 너무 이른 형식학습의 시작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함(OECD, 2017). 더불어, 준비학년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학업 성취를 강조하는 "학교화" 경향이 나타났음에 대한 지적도 있음(Ackesjö & Persson, 2019).

5 시사점

- 이상의 해외사례 검토는 현재 유보통합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국내 유아교육·보육의 역사와 지형 및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적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연령별 이원화이든 일원화 체제든, 동일 연령대를 다루는 교사에 대해서는 공사립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학력 및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사의 질을 유지하고 우수 인력을 유입하며, 교육적 형평성을 높여갈 방안임.
  - 우리나라는 잉글랜드와 유사하게 사립·민영 기관에 대한 서비스 의존도가 높고 유아교육과 보육, 공립 유아교사 간 자격과 학력 수준, 법적 지위 및 처우에서 격차가 존재해 왔는데, 교권 침해 등의 이슈로 교사 직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유·초·중등 교원으로 우수 인력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임. 이를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 유아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과 처우를 초중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임.
  - 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기준을 석사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수학 연한과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에서 시의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될 것이므로, 일반 학사 학위(ISCED 6)로의 학력 조건 상향조정이 적절해 보임. 정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연령별 단일자격」 혹은 「연령별 자격 이원화」(영아정교사, 유아정교사) 중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안에 따라 교사 간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기준이 연령별로 차별화될지 일원화될지 결정되겠으나, 과정과 결과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 동일 자격 내에서는 동일한 법적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고, 연령별 자격 이원화로 지위와 처우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보장은 학력과 자격에서의 차이와 연동되어야 할 것임.
- 준비학년 제도는 유-초 연계 및 인생 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발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이 채택한 접근의 하나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및 유-초 연계가 맞물려있음.
  - 잉글랜드의 경우 5세에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며, 직전 학년인 4-5세 시기(reception year)에 준비학년을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취약계층 및 교육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아동들에게 인생 초기부터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하나, 역시 이른 시기부터 놀이 중심 교육이 축소되고 발달적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학업화를 불러온다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함.
  - 스웨덴의 경우 국제적 기준보다 늦은 7세에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고, 직전인 6세에 준비학년을 의무화하여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PISA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적으로 기존 학사 체제의 유지를 옹호하는 의견이 높았음.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 학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 정부는 준비학년을 폐지하고 초등 입학을 1년 앞당기도록 학사 체제를 변경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임.
  - 프랑스의 경우는 준비학년이 존재하지 않지만, 3-5세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자격이 동일하여 교사 양성과정에서 두 학교급 간 교육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상호 이해가 형성되고, 학교 현장에서 두 학교급이 동일 건물이나 인접하게 위치하여 교사들이 함께 연수를 듣거나 협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초 연계를 이루어나가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
- OECD 조사국 중 취학 전 1년을 연계 학년(transition class)으로 학사 체제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절반을 조금 넘으며(41개국·지역 중 23개국·지역),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약 80%)의 국가는 유-초 연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OECD, 2017).
  - 스웨덴의 경우는 준비학년을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대상 자격연령에 공통으로 포함함으로써 두 학년 간 상호 이

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유-초 간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학년의 도입과 같은 학사 체제의 개편이 필수적이지는 않음을 시사함.

- 유아학교를 통한 의무교육화와 무상성을 달성해 나가되 예비 교사 양성과정에서 유아교사와 초등교사 자격 공통으로 5세 누리과정 및 초등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현직 교사 교육에서 유-초 교사 간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유-초 전이를 지원하는 등의 접근을 취할 수 있음.
- 영유아기 교육과정(EYFS)에 맞추어 초등교육과정을 개정한 영국의 사례는 학교급 간 자연스러운 전이를 위해 유아기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정이 계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일된 프레임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를 확인해줌.

▶ 유-초 연계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영국 모두 유아교육 시기 동안의 성취 정도를 초등교사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음.

- 우리나라도 초등 전입 시 생활기록부 이관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공립과 사립(민영) 기관 간에서 생활기록부 이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기관 유형에 따른 편차 및 형식적인 이관을 넘어서서 유아기 동안의 생활 기록이 초등학교에서의 유아 적응 지원을 위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 이관을 의무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개정 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및 안전을 고려한 디지털 교육 관련 요소 반영의 필요성도 시사함.

- OECD 국가들은 21세기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와 핀란드, 싱가포르, 프랑스 등은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한 명확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스웨덴은 이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역량 함양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국제적으로 인생 초기부터 디지털 역량 함양과 디지털 격차 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미래사회 역량 중 하나로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그 내용은 '학습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소통·기여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초점을 둠. 그러나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도구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기도 해서 디지털 안전을 충분히 강조하는 신중한 도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개정 누리과정은 5개 영역을 아우르는 인간상을 제시하는 등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요소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거나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디지털 관련으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해설서에 미디어 노출은 가정과 협력하여 지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 디지털 안전이나 윤리와 관련한 명시적 목표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인공지능 교육 및 디지털 역량, 디지털 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구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지원자료가 배포되었지만,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교원들은 여전히 많으며, 역량 중심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임.
- 초중등의 경우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였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민주 시민교육의 필수요소로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초중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변화 및 국제적 조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 평가 방법, 교사 연수 등 종합적 개편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디지털 교육과 관련하여 디지털 안전과 윤리,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한 학습과 탐색, 창작과 감상 및 자기표현 등이 5개 영역에 걸쳐 고루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 백선정(2016). 스웨덴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이슈분석, 61호, 16-28.
- 차기주(2021). 형식교육 입학 연령과 개인의 성취 간 관련성에 대한 고찰.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6(1), 5-42.
- 최윤정(2014). 스웨덴의 국가수준 유아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발달과 학습의 의미. 한국교육, 41(1), 141-165.
- 최은영·김아름·김지현·김혜진a·민보경·이채정·차기주·최남희·김주아·김혜자·김혜진b·장혜진·조은경(2025).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어젠다 분석 및 체제 개편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18-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김문정, 이승미, 장혜진, 전효정, 손승희, 배선영, 김유미, 김지연, 유주연, 정정희, 김언경, 김윤희, 박건령, 이효림, 김민솔, 강현주(2024).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 II :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15-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프랑스 한국교육원(2022). 교육과정: 프랑스교육정보. https://educoree.fr/france-edu/cursus/ (2026. 8. 20. 인출)
- Académie de Nantes. (2019). Une valise pour reussir le passage de la GS au CP. https://pedagogie.ac-nantes.fr/poles-et-actions-educatives/innovation-pedagogique/echanger/une-valise-pour-reussir-le-passage-de-la-gs-au-cp (2026. 9. 2. 인출)
- Ackesjö, H., & Persson, S. (2019). The schoolarization of the preschool class – policy discourses and educational restructuring in Sweden. Nordic Journal of Studies in Educational Policy, 5(2), 127-136.
- Agacinski, D., & Collombet, C. (2018). Un nouvel âge pour l'école maternelle. La Note d'analyse, 66. 1-11. France Stratégie. https://www.strategie-plan.gouv.fr/publications/un-nouvel-age-lecole-maternelle (2026. 8. 26. 인출)
- Bryant, M. (2024. 9. 19.). Swedish children to start school a year earlier in move away from play.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sep/19/swedish-children-to-start-school-a-year-earlier-six (2026. 9. 2. 인출)
- Carlbaum, S., Lindgren, J., Benerdal, M., & Rönnberg, L. (2025). Navigating legal discourses in quasi-markets: juridification and privatisation in Swedish local preschool governance. Journal of Education Policy, 40(6), 1000-1021. https://doi.org/10.1080/02680939.2025.2452202 (2026. 9. 2.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a). Survey of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Main summary, England, 2021.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39675/Main_summary_survey_of_childcare_and_early_years_providers_2021.pdf (2026. 8. 28.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b). Early years teacher status: a guide for early years providers. 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c). Statutory framework for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UK Government.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4).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document 2023 and guidance on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Department for Education. UK Governmen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eae75b5b652445f6f21aa4/School_teachers__pay_and_conditions_document_2023.pdf (2026. 8. 28. 인출)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a).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tatutory framework for childminders: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UK Government.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b).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statutory framework for group and school-based providers: setting the standards for learning, development and care for children from birth to

five. https://www.fis.cityoflondon.gov.uk/asset-library/eyfs-framework-for-group-and-school-based-providers.pdf (2026. 8. 28. 인출)

- Education Policy Institute. (2019). The early years workforce in England: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Labour Force Survey. Education Policy Institute.
- European Commission. (2023). Educational guidelines (Sweden).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sweden/educational-guidelines (2026. 9. 2.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4). Conditions of service for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Sweden).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sweden/conditions-service-teachers-working-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 (2026. 9. 2.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5). Early childhood and school education funding (Sweden).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sweden/early-childhood-and-school-education-funding (2026. 9. 2. 인출)
- European Commission. (2026). Educational guidelines (France). https://eurydice.eacea.ec.europa.eu/eurypedia/france/educational-guidelines (2026. 8. 25. 인출)
-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Eurostat. (2014). Key data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Europe: 2014 edit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ydice.indire.it/wp-content/uploads/2016/06/KD_ECEC_2014_EN.pdf (2026. 8. 28. 인출)
- Flemons, L., & Worth, J. (2026). The early years workforce in England annual report 2026.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https://www.nfer.ac.uk/media/wyynwm4b/early_years_workforce_in_england2026.pdf
- Foley, N., & Roberts, N. (2025). Childcare workforce in England.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No. 9948,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948/CBP-9948.pdf (2026. 8. 28. 인출)
- Foster, D. (2024). Early years funding in England. House of Commons Library Research Briefing, No. 8052,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052/ (2026. 8. 28. 인출)
- France Stratégie. (2018). Quand la scolarisation à 2 ans n'a pas les effets attendus: des évaluations sur données françaises. https://www.strategie-plan.gouv.fr/publications/scolarisation-2-ans-na-effets-attendus-evaluations-donnees-francaises (2026. 8. 26. 인출)
- Garnier, P. (2011). The scholarisation of the French école maternell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s since the 1970s.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9(4), 553-563. https://doi.org/10.1080/1350293X.2011.623539 (2026. 9. 2. 인출)
- Gilger, C. (2015). Le numérique dans les programmes 2015 de l'école maternelle et élémentaire. Classetice. http://classetice.fr/spip.php?article468&var_mode=calcul (2026. 8. 26. 인출)
- Havette, S., & Moriceau, C. (2013). De la crèche à l'école : Rupture ou continuité ? Dossiers solidarité et santé, n° 41.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sites/default/files/2020-08/dss41.pdf (2026. 9. 9. 인출)
- House of Commons Education Committee. (2019). Tackling disadvantage in the early years: ninth report of session 2017-19. UK Parliament.
- IFF Research. (2025). Evaluation of the expansion of funded early years initial teacher training (Research Report RR1530). Department for Educa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6fd9992557debd867cbfc2/Evaluation_of_the_expansion_of_funded_early_years_initial_teacher_training.pdf (2026. 9. 9. 인출)
- Lohmander, M. K. (2024). Sweden – ECEC workforce profile. In P. Oberhuemer and I. Schreyer (Eds), Early childhood workforce profiles across Europe. 33 coun

try reports with key contextual data. https://www.seepro.eu/Seiten_Englisch/Texte_Englisch/Sweden_Key_Data.pdf (2026. 9. 2. 인출)

- Lumsden, E. (2024). United Kingdom – ECEC workforce profile. In P. Oberhuemer and I. Schreyer (Eds), Early childhood workforce profiles across Europe. 33 country reports with key contextual data. https://www.seepro.eu/Seiten_Englisch/Texte_Englisch/UK_Workforce.pdf (2026. 8. 26. 인출)
- McKenna, J. (2018, March 28). French children to start school at three – is that too young?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stories/2018/03/french-children-to-start-school-at-three-is-that-too-young/ (2026. 8. 26. 인출)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23). Le 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de compétences et de culture. République Francaise. https://www.education.gouv.fr/le-socle-commun-de-connaissances-de-competences-et-de-culture-12512 (2026. 8. 25. 인출)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2026). Programmes et horaires à l'école maternelle. République Française. https://www.education.gouv.fr/programmes-l-ecole-maternelle-4193 (2026. 8. 25. 인출)
-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6). Country note on transitions: Sweden (Revised July 2016).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about/programmes/edu/ecec/migrate/starting-strong-v/Starting%20Strong%20V%20Transition%20from%20Early%20Childhood%20Education%20and%20Care%20to%20Primary%20Education%20%C3%A2%E2%82%AC%E2%80%9C%20Background%20report%20%C3%A2%E2%82%AC%E2%80%9C%20Sweden.pdf (2026. 9. 2. 인출)
- Montagner, H. (2008, September 4). Les temps, les rythmes et la sécurité affective de l'enfant, fondements obligés de l'aménagement du temps scolaire. Les Cahiers pédagogiques. https://www.cahiers-pedagogiques.com/les-temps-les-rythmes-et-la/ (2026. 9. 11. 인출)
- OECD. (2017).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76253-en (2026. 8. 26. 인출)
- OECD. (2020a).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in England. https://doi.org/10.1787/c235abf9-en (2026. 8. 27. 인출)
- OECD. (2020b). *Education policy outlook in France* (OECD Education Policy Perspectives, No. 15).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debad1c1-en (2026. 9. 9. 인출)
- OECD. (2021a).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1b).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b35a14e5-en (2026. 8. 26. 인출)
- OECD. (2023a).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3b). Starting strong VII: Empowering young children in the digital age.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0967622-en (2026. 8. 25. 인출)
- OECD. (2023c). Joining forces for gender equality: What is holding us back?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67d48024-en (2026. 8. 26. 인출)
- Ofsted. (2017). Bold beginnings: the reception curriculum in a sample of good and outstanding primary schools.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Report No. 17004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82d03040f0b6230269cd73/28933_Ofsted_-_Early_Years_Curriculum_Report_-_Accessible.pdf (2026. 8. 29. 인출)
- Ofsted. (2021). Education inspection framework: overview of early years.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 Pascal, C., Bertram, T., & Rouse, L. (2020). Getting it right in the EYFS: a review of evidence. British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 Paull, G., & La Valle, I. (2018). Evaluation of the first year of the national rollout of 30 hours free childcare (Research Report DFE-RR832). Department for Educa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b9916c140f0b6788afb2940/Evaluation_of_national_rollout_of_30_hours_free-childcare.pdf (2026. 9. 9. 인출)
- Rayna, S. (2024). France – ECEC workforce profile. In P. Oberhuemer and I. Schreyer (Eds), Early childhood workforce profiles across Europe. 33 country reports with key contextual data. https://www.seepro.eu/Seiten_Englisch/Texte_Englisch/France_Workforce.pdf (2026. 8. 25. 인출)
- Schreyer, I., P. Oberhuemer, and M. Karlsson Lohmander. 2024. "Sweden – Key contextual data." In Early childhood workforce profiles across Europe. 33 country reports with key contextual data, edited by P. Oberhuemer and I. Schreyer. Munich: State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Media Literacy. https://www.seepro.eu/Seiten_Englisch/Texte_Englisch/Sweden_Key_Data.pdf (2026. 9. 2. 인출)
- Skolverket. (2019). Curriculum for the Preschool: Lpfö 18. https://www.skolverket.se/download/18.6bfaca41169863e6a65d897/1553968298535/pdf4049.pdf (2026. 9. 3. 인출)
- Skolverket. (2025). Läroplan för förskolan: Lpfö 18 reviderad 2025 [Curriculum for the preschool: Lpfö 18 revised 2025] (3rd ed.). https://www.skolverket.se/download/18.2cd92ed197a1b2bbcd5ddc3/1752152711498/pdf13295.pdf
- Utbildningsdepartementet. (2025, June 18). Klubbat i riksdagen – tioårig grundskola från hösten 2028 [Press release]. Regeringskansliet.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6/klubbat-i-riksdagen--tioarig-grundskola-fran-hosten-2028/
- Villain, D., & Gossot, B. (2000). *Rapport sur les dispositifs passerelles : De la famille et du lieu de garde à l'école maternelle* (Rapports nos. 2000-153 et 00-054).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Inspection générale de l'éducation nationale. https://www.education.gouv.fr/sites/default/files/document/rapport-sur-les-dispositifs-passerelles-254775.pdf (2026. 9. 9. 인출)
- Williams, L. (2018). Bold beginnings or pressure from the start? Forum, 60(3), 365-374.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yny@kicce.re.kr
차기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kijoocha@ewha.ac.kr

2026

해외육아정책리포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 www.kicce.re.kr